

실천성·창작력 흔들리는 출판

대학문화, 어디까지 왔나 <完>

대학은 일정상 중간고사를 마무리 하고 있다. 출판계들도 그 와중에서 4·19기념제를 치루기도 하면서 이제 서서히 5월을 위해 그 준비에 한창일 듯 하다. 그런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학우 대중들에게 무엇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주고자 하는가? 이러한 고민이 아마 출판계 친구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지점일 것이다. 마음대로 주고자하는 내용을 창작해 들어갈 수 있는 출판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화로의 박제화되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남한의 민중운동의 경과과정 속에서 70년대 대학문화~80년대 민중문화운동의 단계를 거쳐 온 노동자계급민중운동의 현재적 과제에 비추어볼때 민중운동의 역사적 흐름속에서 1991년 노동자 계급 민중운동의 변혁운동적 의미는 각성된 실천을 한층 더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민중들도 지난 2년여 기간의 운동의 침체를 제대로 극복

우리들이 원하는대로 안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에 대해 하고 싶은 말들을 제대로 못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내용으로 출판물은 대학 문예운동조직이기를 희망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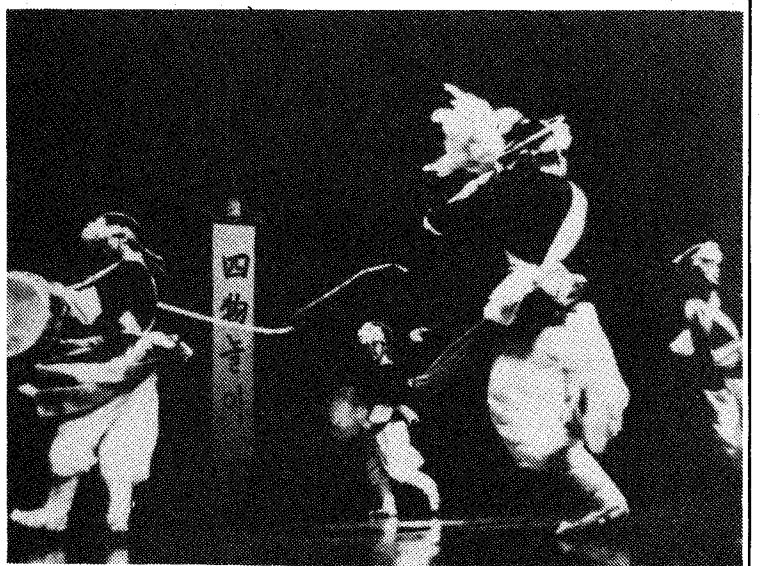
출판물이 출판물 통해 문예의 선동적 힘을 발휘해 내는 것은 그 존재근거를 대중적으로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이러한 시기에 학우대중들의 의식적 각성을 통해 투쟁의 조건들을 만들어 가는 것은 현시기 대학문예에 부여되어야 할 가장 선진적인 임무일 것이다. 문화집회를 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 투쟁이 시급히 조직되고 있지 않음이 객관적인 변혁운동의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할만한 일이 없다는 사고가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현재의 평안(?)을 거부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모르게 빠져들고 있는 무기력감으로부터 재빠르게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출판물의 임무는 보다 절실한 출판물 창작을 통해 이것을 대중들의 품안에 밀어넣는 일이다. 명쾌한 선전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동적인 출판물을 창작해 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들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출판물에 대한 무기력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무기력감은 다른이론 창작 기피증으로 나타난다. 이 창작 기피증의 문제는 출판물의 예술적 발전에 대한 몰입도가 던져지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풍

◇출판물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현실 투쟁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서 확보가 시급하다



할일(임시적으로나마) 대중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두번의 경우를 넘어서면 출판물이 가지고 있는 밀집(?)은 바닥나기 마련이다. 창작을 위한 소재에 한계가 오게 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집체극은 출판물에 판

주체의 출판물 예술로서의 장르 장악력의 미약함이 현실 투쟁의 무력함과 만만 현재 대학출판운동의 실천력의 정도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으리라.

실 투쟁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선동의 장을 확보해 들어감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연행장르에 대한 해석력 미비가 창작기피 성향 초래 메세지 담은 선동적 무대집체극등 연대공연 요구돼

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놓고 나갈 적극적인 의지마저 갖고 있지 못하다. 물론 자본과 정권에 대한 불만은 가득차 있으며 그

것은 대학 문예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출판물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예적 기질을 통해

그럼, 이 와중에 출판물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작년에 도 했고 제작년도 했으나 올해도 할 수 밖에 없는 판권을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출판물이 가지고 있는 문예적 실천력은 어느 정도인가?

물의 언어적 특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도대체 '언어'가 아니라 문예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출판물들의 창작에 대한 회의를 가장 시인 원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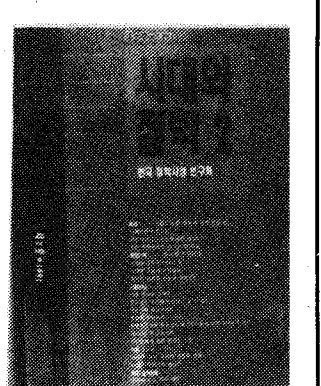
해 전문문예를 찾아 동문서주하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몇번의 공연을 감당해 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문제는 항상 밀집이 드러났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 밖에 없다.

집체극과 같은 장르간 연대공연 이외에 출판물 독자적인 집중된 선동의 공간을 창출하기엔 임

문예운동의 실천적 대오에 부응함과 동시에 출판물의 창작역량의 제고로 출판물의 문예운동적 전망을 밝히는 지점의 결합은 선전·선동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들어감으로 발견될 수 있다. 또 한, 동시에 그곳에서-그실천의 형태가 집체극이든, 길놀이든, 북춤이든, 판타지든 간에- 출판물 장르 해석력들을 찾아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한·철·연의 '시대와 철학'2호

과학적 세계관과 진보적 철학연구를 표방하는 '한국 철학사상 연구회'가 '시대와 철학'2호를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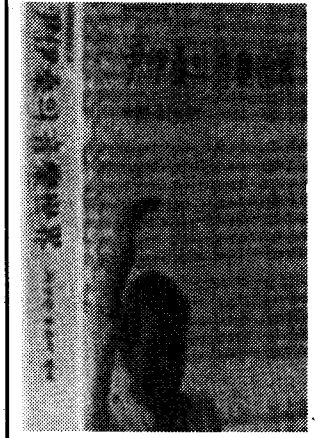


이번 호의 특집을 '사회주의 권 변혁의 철학적 문제들'로 꾸며 변혁과 관련하여 부각된 철학적 문제들, 곧 사회발전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인간론의 문제를 이론과 현실의 긴장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동년판) 값 5천원

신 간

한길사 판 '윤이상 음악세계'



70년대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남자와 고문속에서 살았으며, 지난해엔 '범민족 통일음악회'를 추진했던 음악가 윤이상씨의 삶과 예술세계를 총체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책이다. 한국, 독일, 일본의 작가, 언론인, 음악가들이 필적으로 참여하여 윤이상씨의 삶과 민족관, 예술세계와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한길사판) 값 1만2천원



상업주의에 밀려 쉽게 접할 수 없는 영화만을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영화공간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획 전문 영화 감상실

의 강의가 이뤄진다. 마침 기자가 '1895'문을 읽었을 때, 30여석의 관람석이 꽉찬 상태에서 장전우 감독의 사실주의 영화에 대한 강의 이어지고 있었다.

비상업·예술성 짙은 영화선별

문화의 거리 대학로에 자리한 '영화사랑'(741-7431)은 1백50여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영화감상에 특히 치중하고 있다. 월별로 기획영화제, 화제작과의 만남, '장르별 탐방'으로 나누어 상영하며, 영화선전에 대해 실무자 김재호

회원제 및 이론강좌 통해 영역 넓혀

월 주제별 상영을 한다는 것이 이곳만의 독특한 점이다. 이번달 주제는 '죽음'으로 학술을 다룬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 로만 폴란스키의 '하수인'에 이어 'R씨의 판관리유'(파스빈더 감독), M(프린스 랑감독) 등 죽음에 관한 영화상영과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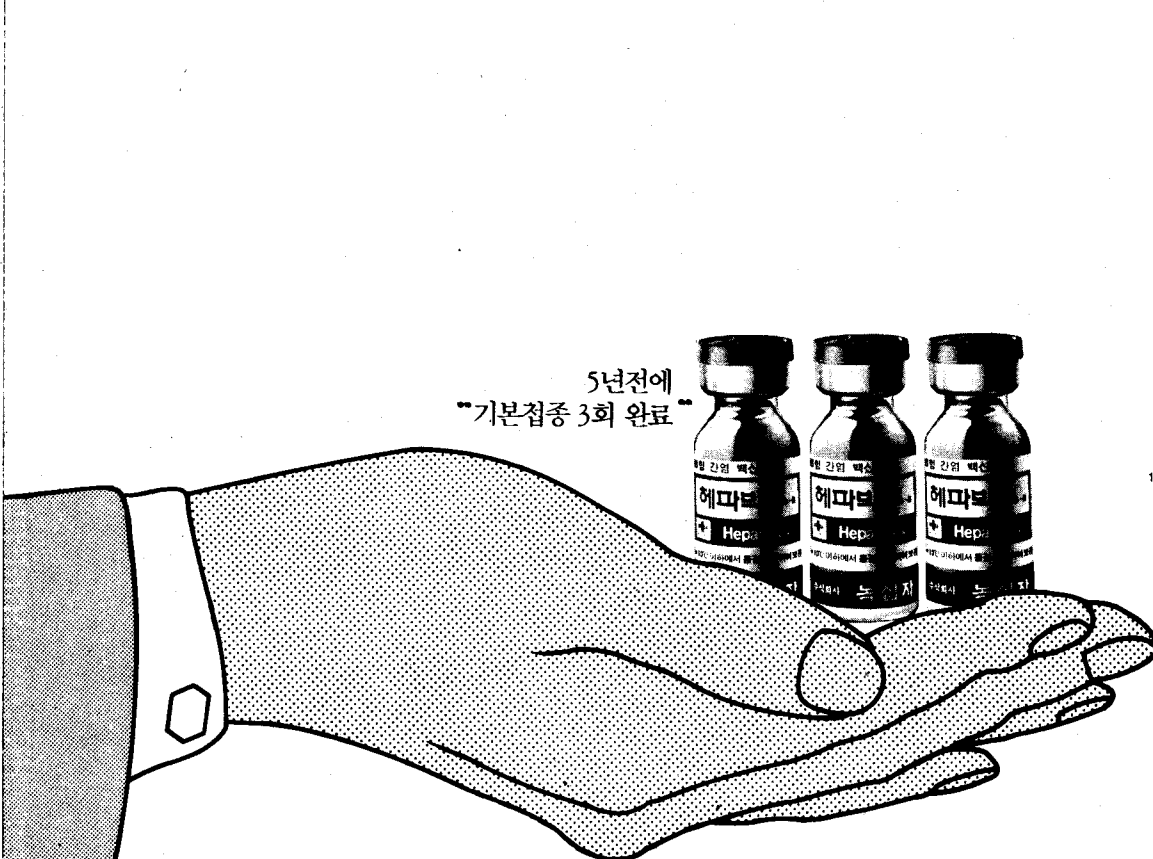
후, 목요일 오전에 나누어 갖는데 이 강좌는 총 26주 코스로 '영화의 장르와 구성요소'에 대한 학습부터 시작해서 '페미니즘 영화론', '3세대 영화운동', '영화정책과 유통구조'등 영화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하게된다.

올라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우선 이러한 공간 자체가 많이 생겨나야 합니다"라고 영화공간간의 양적성장을 가장 시급하게 지적했다. 더불어, 영화선정에 있어 아시아의 예술적 가치가 높은 영화라도 상업적 경리가 없는 탓에 미국, 유럽쪽에 치우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자료교환등 각 공간들간의 유기적 관계 또한 아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효숙 기자)

주식회사 녹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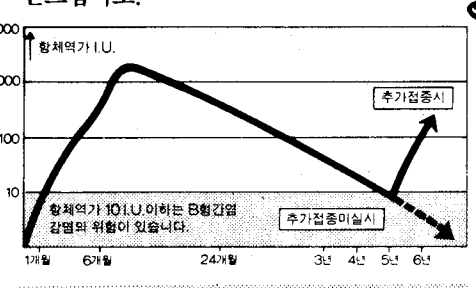
"간염예방-기본접종은 3회, 추가접종은 단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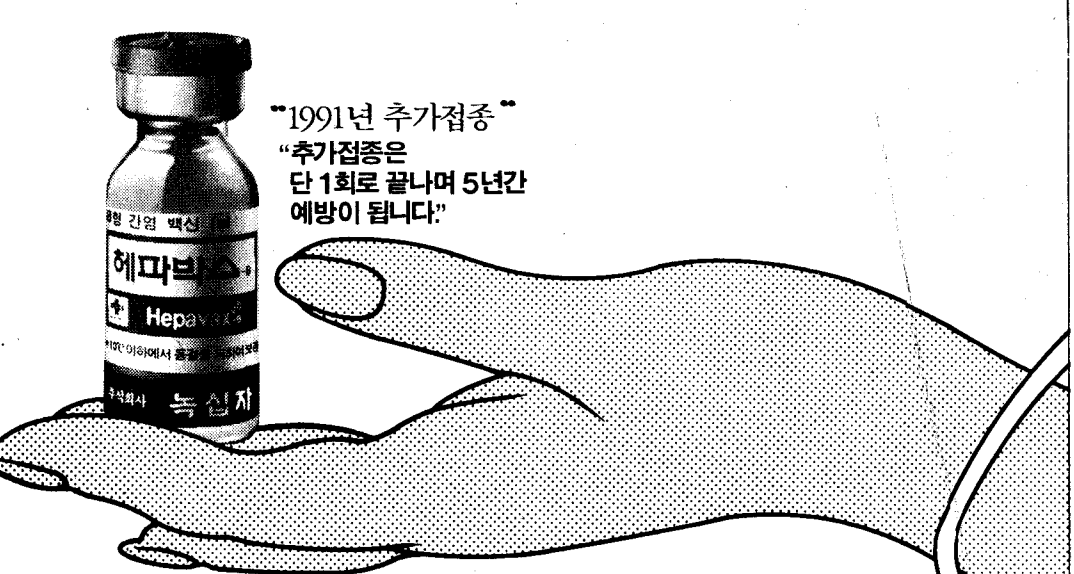
"잊지마십시오!
간염예방은 추가접종이
중요합니다.

3회의 기본접종을 마친 후 5년이 지나면 항체역가가 떨어져(도표의 화색부분) B형간염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급원에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간염예방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5년전에 간염백신을 맞은 분은 급원에 녹십자 헤파박스-B로 추가접종을 받으십시오.



녹십자 간염백신
헤파박스-B
● 표준소매가격: 1ml/9,900원



"1991년 추가접종"
"추가접종은
단 1회로 끝나며 5년간
예방이 됩니다."

반드시 의사·약사에게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사용하십시오.